

하반기 국내 축산업 동향과 전망



허 덕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본회 R&D위원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축산업의 생산액 변화와 성장의 지표로 보면, 1998년 7조 5천억 원에서 2008년 13조 6천억 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였다. 농업 생산액 중 축산의 비중은 1998년 25.3%에서 2008년 35.3%로 높아졌다.

2008년 축산업 생산액 중 한육우는 26.1%, 돼지는 30.1%, 우유는 11.8%, 육계는 10.5%를 차지하였으며, 오리도 생산액이 드디어 1조를 넘어섰다. 쌀을 제외하면 단일 품목으로는 2위에서 7위까지를 모두 축산이 석권하게 된 셈이다.

1. 한육우/쇠고기

2009년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 정육점형 식당의 증가로 한우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우 산지가격도 2009년 6월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필자는 올해 초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이력제 시행 그리고 정육점형 식당의 증가에 의해 한우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적으로 43.4% 가격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근거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소비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9년 소비자 가구당 4주 평균 쇠고기 구매량이 1.48kg으로 전년보다 11.1%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유통물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점에서도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시행 전과 비교하여 한우고기 사용 비율이 46%에서 7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한우가격 등락요인별 기여도

	한우 수소 가격 등락율	도축, 수입, 소득 요인	원산지표시제, 이력추적제, 정육점 등
09.1	-22.6%	-11.1%	-11.5%
2	-20.5%	-8.8%	-11.7%
3	-14.5%	-30.1%	15.7%
4	-7.7%	-14.3%	6.5%
5	0.7%	-10.7%	11.5%
6	6.9%	-32.9%	39.8%
7	14.8%	-14.0%	28.8%
8	39.6%	5.3%	34.2%
9	44.4%	-25.2%	69.6%
10	47.1%	24.6%	22.5%
11	51.1%	4.6%	46.4%
12	57.2%	-5.3%	62.5%

주: 가격 등락율은 전년 동월대비임.

한우고기 수요 확대에 따라 한우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육우 사육 두수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3월 사육두수는 270만 6천두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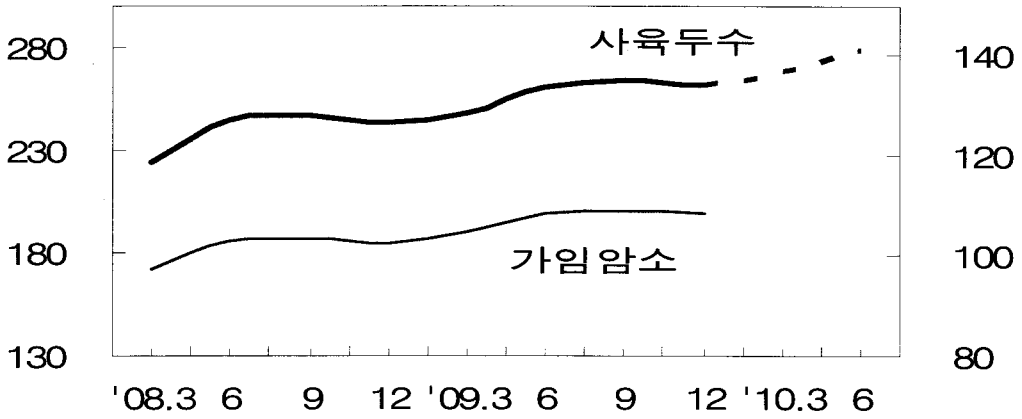
게다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2009년 전반기에는 환율도 높게 형성되어 2009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한우고기를 대체할 수입 쇠고기 마저 공급이 줄어들자 한우 산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볼 때 한우 사육마리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한우 등급판정 마리수는 전년대비 8.7% 감소한 15만 4천 두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2010년 3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5만 1천 톤이었다.

한편, 1월초 경기도 포천에서의 구제역 발생하여 가축시장이 폐쇄되면서 가격 상황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한우 산지가격이 다소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가축시장 개장 이후 다시 가격 조정(상승)의 기미를 보이던 중, 4월 9일 인천시 강화군에서의 구제역이 재발되고 다시 가축시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은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설 이후 한우 수소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송아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우수소 산지가격은 2010년 1월 600kg을 기준으로 할 경우 586만원으로 정점을 보이다가 4월에는 541만원으로 1월에 비해 7.6% 하락하였다. 반면, 수송아지의 산지가격은 1월 232만원에서 4월에는 251만원으로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두수(만두)

가임암소(만두)



<그림 1> 한육우 사육두수 추이 및 전망

이는 주로 최근 가축시장 개장에 따른 송아지 입식 의향이 일시적으로 높고 한육우 이외의 일부 경종과 타축종에서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한우 사육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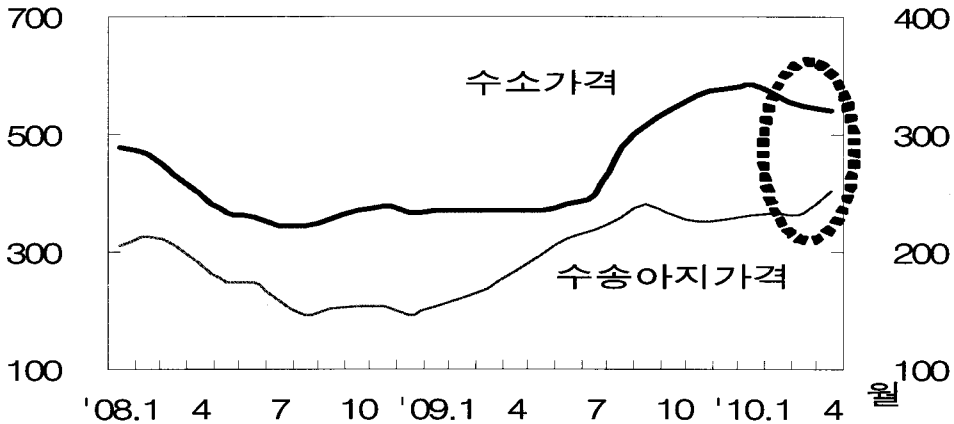
여기에 최근 육회지존, 육회천하, 육회본좌와 같은 육회 프랜차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군납 물량의 증가가 또 다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으로 특히 2등급 내지 3등급의 한우 도매가격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3등급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3월 평균 13,221원/kg으로 전년대비 32.8% 상승한 데 비해 1++등급의 경락가격은 같은 기간 20,642원/kg으로 17.3% 상승에 그쳤다.

수소가격(만원)

수송아지가격(만원)



<그림 2> 한우 수소 및 수송아지 가격 추이 및 전망

아직은 산지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송아지 입식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도 사육두 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다. 한육우 사육두 수는 3월 270.6만두에서 6월에는 278만 두로 3월보다 2.7% 증가하고 올 연말에는 280만 두 이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아지 가격 강세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4월 중순 이후 송아지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한우 수소 산지가격 또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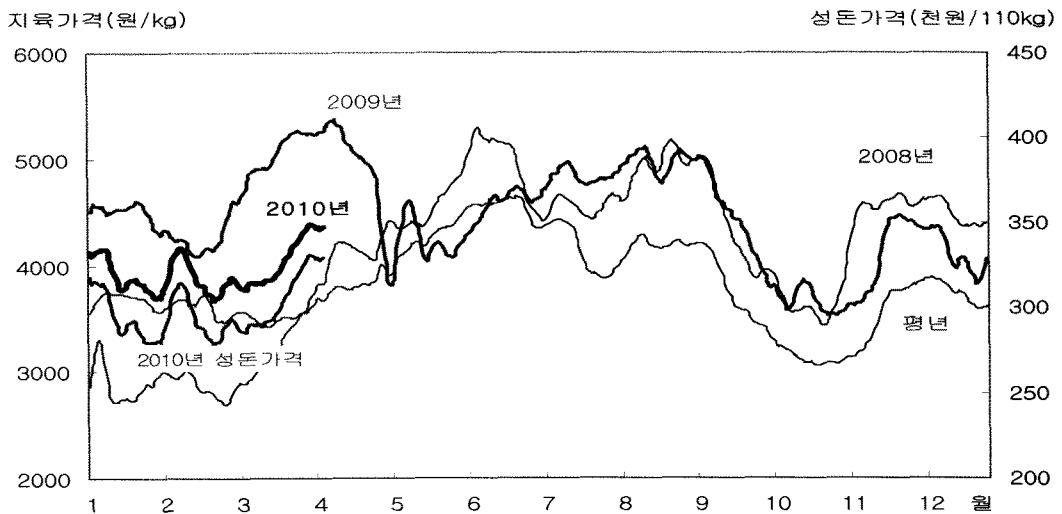
2. 돼지/돼지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수입량 감소,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 백신 보급의 확대로 돼지의 폐사율이 개선되어 2009년 돼지 연평균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929만 마리였다. 사육마리

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여 돼지고기 평균 지육가격은 2008년보다 9.0% 상승한 4,472원/kg이었다.

4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의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938만 2천두로 나타났다. 모돈수 역시 전분기 보다 2.3%,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한 98만 8천두로 발표되어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돼지의 6월 사육마리수는 3월보다 3.5% 감소한 942만 마리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올해 1~3월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8.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 잦은 눈과 저온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4월 들어 날씨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경우 수입량 역시



<그림 3> 돼지고기 도매가격 동향

전년도 동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고 누적과 수익성 저하로 수입량은 여전히 전년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4월 5일 까지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1kg당 4,40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준은 결코 낮은 수준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평년보다는 오히려 19.3%나 상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 당국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4월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전년보다 11.2~15.2% 낮은 1kg당 4,200~4,400원, 5~6월 가격은 신종플루로 가격 약세를 보였던 전년보다 2.6~9.4% 높은 4,500~4,800원, 7월 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전년보다 2.6~6.8% 낮은 4,500~4,700원으로 전망된다. 8월 이후에도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육계/닭고기

종계 입식이 증가하여 2009년 육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14.9% 증가한 7,320만 마리였다. 육계가격은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와 사료비 인상분이 산지가격에 반영되어 2009년 육계의 평균 산지가격은 2008년

보다 23.5%나 상승한 1,933원/생체kg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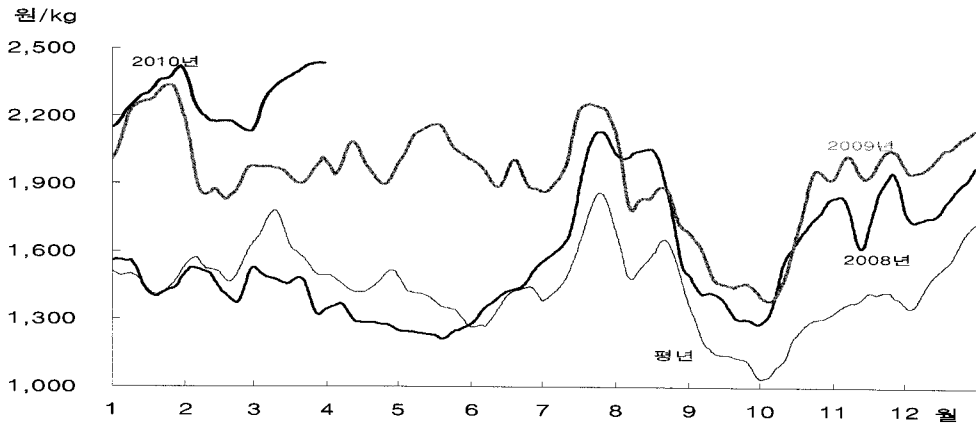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3월 육계 사육수는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한 5537만 7천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들어 겨울철 이상기후가 심하였다. 육계부문에서는 한파와 폭설 등에 따른 종계와 육계의 생산성 저하 현상이 심각할 정도였다. 올 겨울철(1~2월) 한파로 인해 육계의 출하 체중이 감소하고 출하 일령도 지연되어 이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꽃샘추위가 길어지면서 이로 인한 호흡기 질병 및 일교차가 큰 날씨 등으로 육계 생산성이 부진한 상태가 장기화되었다. 특히, 폭설 이후 습해진 사육환경에 따라 질병이 한층 더 발생하여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부진하여 동일한 사육수수에도 불구하고 출하 물량이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산지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월의 육계 전국 평균 산지가격은 생체 kg당 2,355원으로 2009년 동기보다 20.5% 상승하였는데 문제는 2009년 같은 시기도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격 수준은 평년에 비해서는 44.0%나 상승한 수준이다.

수요부문에서는 1월 초부터 포천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대체 육류 수요로 닭고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였다. 결국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산지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환율이 전년도에 비해 안정세를 보



<그림 4> 육계 산지가격 동향

여 1~3월의 닭고기 수입량은 18,717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76.3%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병아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병아리 가격이 좋고 육계 가격 마저 높게 유지되어 종계 입식 마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향후 몇 개월 뒤에는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교차가 큰 기상 상태와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지속되어 4월에도 도계 마리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월 이후에는 생산성이 회복되고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도계 마리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월 육계 산지가격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5~6월 이후에는 현재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009년에는 육용 종계를 입식한 마리수가 많아 올해 육계 사육마리 수는 2009년보다

5.0% 증가한 7,686만 마리로 예상된다. 이는 곧 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므로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한 연평균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9.6% 정도 하락한 1,748원으로 전망된다.

4. 젖소/우유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원유감산정책과 낙농의 수익성 저하에 따라 폐업농가가 증가하고 저능력우 도태가 많아 2009년 젖소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44만 5천 마리였다. 사육마리수 감소와 사료비 부담에 따른 사료급여 차질로 2009년 원유생산량은 2008년보다 1.1% 감소한 212만 톤이었다.

통계청은 3월 젖소 사육두수를 전년 동기보다 0.2% 증가한 44만 9천두로 발표하였다. 그 중 가임 암소는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한 30만 7천두로 나타나 향후 원유 생산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료급여량 증가와 사료품질 개선으로 마리당 산

유량도 증가하여 2010년 원유 생산량은 2009년보다 0.6% 증가한 214만 톤으로 전망 된다.

5. 산란계/계란

한편, 산란계 부문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여 계란생산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계란 1인당 소비량 역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계란생산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의 계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사료비 인상분이 계란가격에 반영되어 2009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0.2%나 상승한 1,175원(특란 10개당)이었다.

2009년 산란 종계 입식 마리수 감소에 따라 2010년 산란계 사육마리수 및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1.1kg으로 전망되며, 생산량 감소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3% 상승한 1,190원으로 전망된다. ☞

